

새로운 건축을 생각한다

New Architecture In Globalization

李寬植 / (주)중합건축사사무소 이공
by Lee Kwan-Jick

결국 건축의 국제화, 세계화는 건축가의 책임으로 되돌아온다. 건축가의 영역은 설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 건설, 문화, 예술로 무한히 열려져 있다. 건축은 기술적인 배경을 도외시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술적 판단과 미적 토대에서 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와야 한다. 새롭지 않은 것이 역사에 남지 않아서도 아니고, 새롭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우리 건축가들이 끊임 없이 물고 늘어져야 할 화두인성 싶다.

우리의 건축설계능력은 미국이나 일본에 몇 년이나 뒤져 있을까. 십년, 혹은 이십년? 차라리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분야처럼 그렇게 한 이십년 열심히 따라붙으면 가능성이 있으리라 예측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실은 어떤가? 전혀 측정할 수 없다. 세계일류도 모자라 초일류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 건축은 지금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2년 동안 중국 해남에 868타워의 설계를 담당하면서 나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국제화나 세계화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았다. 남보다 앞서지 않는 현상유지는 곧 퇴보이자 도태라는 혹독한 현실은 건축설계분야 역시 비껴가지 않는다. 발전은 차치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국제화, 세계화는 분명 필요하고 절실하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시장개방의 파고가 건축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우리의 건축설계시장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물론 십여년전에도 외국의 설계를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과 우리의 미숙한 수준에 울화를 삭여야 했었다. 설계수입에 대해 목소리만 높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권익보호나 자존심을 앞세워 격한 어조로 반대하기도 했었다. 지금은 어떤가?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 설계의 수입이라는 면에서만큼은 국제화, 세계화는 착실하게 내실을 다지고 있는 셈이다. 근래 미국 등 설계선진국들이 아시아의 시장확대에 진력하면서 그들에 의한 국내설계수주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건축주들도 국제적인 유명건축가를 찾아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건축주들이 요구하는 고급스럽고 개성적인 이미지, 첨단 지능을 갖춘 건물에서 우리는 선진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까지는 대형건물에 국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 그 추이를 짐작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우리가 현재의 열등한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설계선진국을 이루려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설계능력향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일반산업분야에서처럼 기술이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합작 등의 방법으로 해외의 국제적인 설계사무소와 공동작업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은 우리 설계인력들이 충분히 기량을 쌓고 펼칠 수 있는 국내의 건축환경조성이다.

미국 건축가 협회에서는 건축가를 위한 실무핸드북을 A4크기 4권으로 두툼게 만들어 실무를 위한 거의 모든 자료를 총망라해 놓고 있다. 이 책은 건축가의 각 단계별 용역 범위, 설계프로세스, 건축 각 주체 상호간-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시공자, 시공자와 하도급자 등등-에 쓰이는 표준 계약서 등, 계약에서 입찰, 감리까지 설계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의 주체가 감리까지 설계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의 주체가 되는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는 이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는 서로의 권리, 의무의 중심축이 된다. 미국건축과정의 합리성은 바로 이 계약서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건설주체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성시스템이 낱알의 건물 만이 아니라, 도시와 그의 미래를 설계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발전된 건축시스템이 없다. 서로의 의무, 권리관계 역시 명확하지 않다. 설계나 시공은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과정을 통해 작업되고 생산된다. 때문에 적당히 서로를 믿고 떠넘기는 애매한 관계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와 부실의 위험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건축물을 짓겠다는 욕심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사협회에서 표준계약서 등을 보완하는 것을 위시해 여러 체계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또 한가지, 설계와 감리의 위상 문제를 명확히 짚어야 한다. 여기서 복잡한 법적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건축사에게 감리비 몇 푼을 올려 주면서 시공회사와 건축주의 부정을 감시하는 건축경찰의 책임까지 들쭉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명확히 책임회피이기 때문이다. 불법적으로 건축하려는 건축주가 있다면 다른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법에 의거, 경찰과 검찰이 적발과 처벌을 담당해야한다. 시공회사인 경우는 어떤가? 감리에 대한 공사비의 규모가 최소한 열배, 스무배가 넘고 날이갈수록 첨단시공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 두명의 감리자가 수십, 수백명의 시공인력이 동원되는 시공현장을 감당한다는 것은 무리다. 시공회사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시도하려했을 때 설사 완장을 두른 건축경찰이라 한들 그 적발이 가능하겠는가? 불법은 법을 어긴 당사자에게 그 죄를 물어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해괴한 현실도 다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계약상황에서 우리 식의 주먹구구식 책임떠넘기기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건축주와의 계약에서 건축가는 설계로, 시공자는 시공면에서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한다.

미국의 경우C.M(construction management)제도에 의해 감시, 감독된다. 건축주가 시공경험이 더 많은 회사를 고용해서 시공회사의 건축공정관리와 기성결제, 자재평가 및 결정을 해주는 제도다. 고용된 감리조직은 시공회사에 비해 소수지만 기술능력과 지원체제가 충분해서 시공회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얼핏 복잡한 단계의 결정이 필요한 호텔 현장에서 보이는 우리나라의 건설본부조직이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건설본부의 경우, 인원이 개인적인 촉탁 등 시한부 계약조건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회사나 자재회사와 결속되기가 쉽고 기술능력과 책임범위도 C.M제도와는 다르다. 또 최근 등장한 감리전문회사의 경우도 자격증 위주로 구성된 조직과 책임에 대한 비용만으로 건설회사를 기술적으로 지도하면서 건축주 입장에서 경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펼 수 있을런지는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C.M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도 하루 빨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토대 위에서 계약에 의해 책임과 권한을 엄격하게 나누는 것이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와 시공분야의 발전된 지식, 이론, 자료의 체계화도 시급하다. 건설회사별로 개별화되고 독점된 첨단시공정보나 자료는 기업 고유의 노하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되고 공동이용 방법이 강구되어야한다. 건축사협회가 설계자료의 체계화와 전산화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각 설계사무소에서 이용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 대학과 사무소 단위로 국내외 잡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전산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나 사무소마다 반복되는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건축사협회차원에서 통합적인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시방서도 현재 자재소개와 시공범위주로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미국식으로 코드화하고 단순화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건축설계가 갈수록 기술적으로 첨단화되어가는 산업현실에서 국제경쟁력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전분야의 전략적인 제휴가 필요한 것이다. 덧붙여 분야별 엔지니어링 협회 또는 전문업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점에서 최근의 알미늄 커튼월분야 전문업체의 출현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아직도 설계 단계에서의 전문기술협력업체나 협회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의 낙후된 건축상황은 바로 건축교육의 낙후성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교육제도면에서 우선 꼽을 수 있는 문제는 건축시공분야의 전문인 양성과 건축가의 양성이 같은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과 학생들이 졸업에 임해서까지 어느 분야에서 일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는 물론 학생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학과가 진행하고 있는 불투명한 건축교육도 책임이 있다. 건축가와 전문적인 시공기술자나 기술경영인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커리큘럼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건축사적인 배경 하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야하는 교육과 기술습득교육이 전혀 구분되지 않고 진행되는 현재의 학교교육이 초래하는 결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졸업후의 건축인력양성도 문제다. 건축가를 꿈꾸는 대부분의 대학졸업생들은 영세한 설계사무소에서 다른 분야보다 열악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실무를 익힌다. 그 동안 대학에서 꿈꾸어온 대가와와의 교감이나 작가로서의 꿈은 빛이 바래기 마련이고 몇년후 도면이 손에 익을만하면 조금 잘하는 제도사가 되어있기 십상이다. 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비로소 쓸만해 질 때 사무소의 영세성을 견디지 못하고 더 좋은 보수를 주는 대기업스타일의 직장으로 옮기거나 아예 건설회사나 자재회사로 전직하기도 한다. 어차피 경쟁사회이니까 살아남는 자만이 성취할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냐고 강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열악한 조건 아래에서도 꿈을 키우려 몇년을 근무하고나서 결국 진로를 수정하고 또 건축사 시험에 몇 년을 허비해야 하는 현재의 사무소 인력구조는 지나친 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사무소나 개인이 그 진로나 경영선택에서 유연성을 가지도록 연봉계약제의 확산이나 전문대학을 통한 제도인력의 양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결국 건축의 국제화, 세계화는 건축가의 책임으로 되돌아온다. 건축가의 영역은 설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 건설, 문화, 예술로 무한히 열려져 있다. 건축은 기술적인 배경을 도외시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술적 판단과 미적 토대에서 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와야 한다. 새롭지 않은 것이 역사에 남지 않아서도 아니고, 새롭지 않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도 아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우리 건축가들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야할 화두인성 싶다.